



2018 다민족연합기도대회는 "이 땅을 고쳐주소서(Heal Our Land)"를 주제로 열린다. 기자회견 후 단체사진 모습

## 미국의 영적 각성 위해 올해도 다민족 연합한다

### 2018 다민족 연합기도회 28일 은혜한인교회서

2018년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Multi Ethnic Prayer Gathering)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땅을 고쳐 주소서(Heal Our Land)"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11월 6일에 치뤄질 미국 중간 선거를 염두해 날짜를 앞당겼다.

대회에 앞서 주최측은 27일 은혜한인교회 본당 새교우실에서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회 관계자 및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다민족 기도회 준비위원장인 강순영 목사의 사회로 참가자 소개, 홍보 동영상, 환영인사, 개회기도, 메시지, 대회 설명, 질의 및 응답, 격려와 도전,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해, 합심기도, 알침, 점심식사와 교제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기홍 목사(대표대회장)는 환영사를 전하며, "미국 자체가 다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다. 세계경제와 정세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미국이 성경에서 멀리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부분의 심각성

을 인식한 크리스천들이 모여 이러한 이슈들을 놓고 기도하게 됐다"고 기도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인교회가 연합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민족이 연합해 기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이후 이서 목사(공동준비위원장)의 개회기도에 이어, 척 콜슨과 함께 교도소 사역을 했던 월터 터커 박사(Walter Tucker, Truth and Love Chistian Church 목사, 변호사, 연방하원 역임)는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 높은 살인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랐을 때 '회개와 기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회의 핵심 미션을 '회개, 부흥,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순영 목사(준비위원장)는 지난 연합기도회를 통한 구체적인 결과와 대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먼저 2011년 데이비드 안드레이드 목사(David Andrade, Excutive Director of A Line In the Sand)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회가 2015년 어

떻게 한인이 주도하는 대회로 바뀌었는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포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부의 중진들이 미국을 하나님께 되돌리고 있는 지 전했다. 또한 '종교 자유 행정명령'의 서명을 통해 종교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사건도 언급했다.

대회의 목적은 '미국의 대부흥'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및 '성경적 가치관의 회복'과 '선교운동의 활성화'이다.

이 중에서도 강 목사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으로 연방대법원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현재까지 6천 만 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법의 폐지를 청원하는 운동이 시행 중임을 강조했다. 주최측은 올해 연합 기도회에는 다음 세대들이 이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8명의 차세대 지도자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가 지난달 30일 남가주살롬교회에서 열렸다.

## 제 8회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 성대히 열려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에 남가주살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찬양제는 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 행사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이 찬양제에는 8개 찬양 팀이 참가해 2시간 반동안 은혜로운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참가한 교회는 원패밀리교회 (장경일 목사), 한인소망교회 (윤목 목사), 토랜스조은교회 (김우준 목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 토랜스선한목자교회 (김현수 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이항영 목사), 남가주살롬교회(김준식 목사),

남가주살롬교회 헤세드 남성중창단 등으로 각각 2곡씩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찬양 '우릴 사용 하소서'를 부르며 찬양제 대미를 장식했다.

부 예배에서는 인도에 이항영 목사, 말씀 선포에 '천국을 맛보기'라는 제목으로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축도에 김준식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찬양제에서 모여진 헌금은 사우스베이지역의 복음화와 개척교회를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우스베이 한인 목사회는 올해 협력 행사로 오는 28일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다민족 연합 기도회를 앞두고 있다.

또 월터 박사가 아프리카인 아메리칸들을, 치노힐 갈보리 체플에서 백인들을 동원할 계획이며, 작년에 3~4백명 정도를 동원한 히스패닉 교회, 중국인, 유대인, 베트남인 등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샘신 목사(공동준비위원장)의 인도로 참가자들이 함께 합심기도하고 월터 박사, 앨런 파커 변호사, 한기홍 목사의 기도로 마무리 됐다. 한 목사는 "행사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다.

다음 일정으로는 10월 22일 오전 8시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실행위원 모임을 갖고, 25일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도감사 설명회 및 기도회가,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기도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주디 한 기자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90% 불신자 전도와 90% 정착의 열매가 있는 대구목자교회

# 전도와 새가족 정착 세미나

**MOKJA 목자교회** 대구 목자 교회는 90% 전도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이며 오직 불신자 전도로 7배의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도의 은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전략과 방법은 다양해야 합니다.

목자교회의 전도방법은 이론만 말하고 동기부여만 하는 전도세미나가 아니라 각 교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전도시스템입니다.

대구 목자교회는 90% 이상의 새 가족이 정착하는 교회입니다. 체계적인 양육과 시스템을 통해서 새 가족이 정착하며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목자교회 새 가족 사역을 담당하는 이해란 사모의 강의와 새 가족 부원들의 구체적인 사역을 소개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LA찬양교회(김성대 목사 시무) 3401 W. 3rd St. LA, CA 90020(전화 213-383-7284)  
**등록비** 무료  
**혜택** 강의자료집, 점심식사  
**대상**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  
**주관** LA찬양교회  
**후원** 사단법인 처치파트너스 / 목자교회(Mokja) / 경북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03(서변동)  
**전화** (053) 955-1001, www.mokja1000.com

**강사**  
 박기준 목사 (대구 목자교회)  
 이해란 사모 (대구 목자교회)

**세미나 내용**  
 제1강의 전도하는교회인가? 전도되는교회인가?  
 제2강의 목자교회 전도사역 소개  
 점심식사  
 제3강의 목자교회 새가족사역 시스템 & 베프사역이란?  
 제4강의 새 가족사역 사례발표와 현장체험

**박기준 목사 초청부흥성회**  
 ● 일시: 2018년 10월 11일(목)-14일(주일) 저녁 7:30  
 ● 주제: 전성기를 구하라 (시 31:15)  
 ● 장소: LA찬양교회 (김성대 목사 시무)  
 11일(목) 저녁 천배의 복을 기대하라 (산:10-11) 12일(금) 저녁 확신하며 살라 (딤후:12-15)  
 13일(토) 저녁 하늘 문을 열어 주리라 (시78:3-25) 14일(주일) 오전 전성기를 구하라 (시31:14-15)





지난 9월 30일 기쁜우리교회는 '930 예수 초청잔치'를 열어 가족, 이웃들과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 ‘사랑의 온도’ 실감한 예수초청잔치

글렌데일에 위치한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는 표어 아래 지난 9월 30일 주일 예배 시간에 '930 예수 초청잔치'를 열어 주위의 많은 이웃과 가족들을 초청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 초청잔치는 올해 6월 24일 전교인 야외예배를 시작으로 9월 29일 특별새벽기도회까지 전교인이 참여한 릴레이 행사였다.

이날 주일예배는 성도들과 전도 받은 자와 방문자들로 분당이 가득 찬 가운데 이재학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다. 최흥기 장로의 기도후

이정욱 집사와 박선영 자매가 특송을 불렀고 연합찬양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다. 미디어팀이 제작한 환영 영상이 상영된 후 김경진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자신의 간증을 전하며 1때 교회에 충성하던 아버지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을 겪으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 영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의가 더욱 깊어졌고 신앙의 결단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증거를 보여주시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보여주셨다.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경멸했었고 내 안에 어둠이 있던 것,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찾아 오시고 주님이 저와 함께 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고백했다.

이후 흥민성 집사가 특송하고 최세용 장로가 축사 “부활의 영광”을 낭독했으며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됐다. 교인들은 “목사님의 간증에 눈시울이 뜨거웠다. 사랑의 온도를 실감하는 날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아주사퍼시픽대학, LGBT 허용 “보수의 항복”

복음주의 계열인 아주사퍼시픽(Azusa Pacific, APU)이 지난 주 수년간의 압력으로 인해 캠퍼스 내 학생들에게 LGBT 관계를 허용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2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학교 신문인 주미디어는 이 대학은 캠퍼스에서 LGBT 관계를 금지한 학생 행동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규정은 올해 가을 학기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하나님께서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 서약을 기초로 일어난 성적인 연합을 의도하셨다”는 전제 하에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기준은 여전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LGBT 활동가들은 오랫동안 변화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동료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학생처 학장인 빌 피알라는 학생 행동 규범의 변화에 대해 “행동 수칙에서 일어난 변화는 기독교 기관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여전히 일치한다. 언어는 변했지만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인간의 성에 관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브레이브 커먼스’(Brave Commons)의 공동 대표인 에린 그

린과 최근 LGBT 그룹의 승인을 촉구한 APU 졸업생들은 동성애를 배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언급해 왔다. 이들은 “동성애자인 학생들은 APU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낭만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APU의 행동 수칙은 동성애가 항상 성행위를 포함한다는 예측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행동 수칙 변화와 함께 ‘캠퍼스 내 LGBTQ+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피알라 학장은 “우리의 사명은 기독교와 일치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포용, 사랑, 용기를 주된 가치로 하며 우리의 목표는 보살핌, 연결, 대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독교 작가 로드 드레허는 이러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The American Conservative’ 웹 사이트에 “그들은 자기들의 ‘정신’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수적인 기관이 항복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포기했지만 항복하지 않았다고 그들 자신과 기부자들에게 말한다. 아주사퍼시픽은 중요한 복음주의 학교이다. CCCU(기독교 대학 및 협의회)에 가입한 다른 학교들이 취하는 앞으로의 대응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내다봤다.

### “더 밝은 금란교회의 미래를 위해 부르셨다”

#### 나성금란교회, 이석부 목사 파송감사예배



이석부 목사가 나성금란교회 4대 담임으로 파송됐다.

지난달 30일 주일 오후 4시에 가디나에 있는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Kum Ran United Methodist Church)는 제4대 담임목사 이석부 파송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강희 목사(금란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파송감사 예배에서 나형찬 장로와 제임스 김 목사가 감사기도를 드리고 “내 선한 목자” 축하 찬양에 이어 신상천 권사가 성경을 봉독했다. 연합성가대가 “완전한 기도” 찬양을 불렀고 서부 감리사 마크

나카가와(Mark Nakagawa) 목사가 “마음을 다하는 지도자(Leading with Heart)”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이 예배를 위한 말씀을 준비할 때 “새로운 왕 다윗을 찾는 장면이 떠올랐다”며 “목회는 양을 돌보는 일처럼 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더 밝은 금란교회의 미래를 위해 그를 부르셨다”고 격려했다.

헌금과 헌금찬양 이후 나성금란교회 2대 담임이었던 윤선식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그는 “훌륭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맞이하게 된 나성금란교회 여러분께 축하를 드린다. 목사님과 그의 관계를 잘 해야 한다. 신앙의 성패가 여기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

격려사에 이어 색소폰팀이 “아주 먼 옛날”과 “살아계신 주”로 축가를 선사했고 평신도 대표로 찰스 케를 장로가 담임목사를 소개했다. 위임

식에 이어 선물을 증정했다.

이석부 목사는 “성도님들이 기쁘고 슬프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가득한 교회, 안식처가 되는 교회, 말과 행동이 정직한 열린 제자들이 모인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내 마음과 목숨,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순태 장로가 취임패를 증정하고 김세욱 권사와 김윤자 권사가 꽃다발을 증정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코코스 회장인 김낙인 목사가 축사하고 김웅민 목사가 축도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한 이석부 목사는 가정 상담 사역을 하는 사

도 김성희와 하버드대학에 재학 중인 딸 이현영이 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유학길에 올라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M.Div와 D.Min 학위과정을 밟았다. 99년 목사안수를 받은 그는 98년부터 99년까지 하와이 퀸즈 메디컬 센터에서 원목을 거쳐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Bardsdale United Methodist Church(1999년~2003년),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2003년~2005년), 태평양 연합감리교회(2005년~2006년), 아테시아-세리토스 연합감리교회(2006년~2018년)에서 목회했다. 2001년 미연합감리교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회 정회원이 되었으며, 현재 연회 안수사역부 위원과 서부 지방회 안수사역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나성금란교회는 노방전도, 성지순례, 영적후견인 세우기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할·렐·루·야·한·인·교·회

# 창립40주년 감사예배 및 권사임직예배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할렐루야한인교회는 LA동부지역인 Walnut에 1978년 설립되어 지난 40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창립40주년 감사예배 및 권사임직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초대하오니 꼭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 담임목사 송재호의 모든성도 일동

- 일시 : 2018년 10월 14일(주일) 오후 4:30
- 장소 : 할렐루야한인교회 본당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 문의 : T.(909)595-3110 www.hkchurchla.org

할렐루야한인교회  
 First Southern Baptist Church of Walnut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한국 교회의 수난 (VI)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한국 장로교회에서 최초로 자유주의 신학을 부르짖고 나선 사람은 황해도 봉산(鳳山) 지방의 김장호(金庄鎬) 목사다. 그는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의 주장에 따라 해설하고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을 갈대밭 사이를 건넌 것으로, 예수의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을 군중들이 도시락을 싸온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1916년 6월 황해도노회는 김장호의 총대 자격을 박탈하고 6개월간 휴직처분 시켰다. 그러나 김장호가 노회의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목회 하자 노회는 12월에 모인 정기회에서 노회 권고 불복을 이유로 김장호의 목사직을 박탈하였고, 1923년 총회는 노회의 처리를 인정하여 기정사실화하였다.

그러나 그는 노회의 결의에 불복하면서 노회 탈퇴를 선언하였다. 또한 신원교회 경영 실패학교에서 광기호(郭圻浩) 외 13명과 함께 '정신(正信)의 교회,' '동양인의 교회,' '국민의 교회'를 표방하면서 '조선기독교교회' 창립을 선언하였다.

김장호의 조선 기독교회는 두 면에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첫째는 신학적인 문제다. 그는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보수신학을 전수한 장로교회 목사가 성경의 자구적 해석에 머물러 근시적 해석으로 일관하며 황당무계한 주석을 함부로 첨가하여 지식에 어두운 신자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과학과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유지한 상태에 머물러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교회의 현대화를 외치며 교리해석에 문명국의 선도적 신학설을 자유롭게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분명히 신학적 문제였다. 그러나 신학적 문제를 내세우면서 '조선적' 기독교회를 표방한 이면에는 반선교사, 반교권을 깔고 있어서 실제로는 일본적 기독교화의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말았다. 김장호는 내선민족(內鮮民族) 곧 일본과 조선의 민족적 불가분리성을 주창하였고, 모국 일본의 반석 같은 배경을 찬양하면서 절대로 하늘이 내린 일본인으로 태어난 권리를 받

휘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가, 곧 일본을 사랑하고 국헌(國憲)의 신성을 지키는 것이 재건설의 목표라 천명하면서 일본의 어용교과였던 조합교회와 교류했다. 또한 3·1 독립운동을 맹비난하면서 노골적으로 친일파의 물골을 표출했다. 그는 1921년 사리원교회 안에 신학부를 설치하고 단기 속성제로 다수의 목사들을 양성해 내는 교활성도 보였다. 1929년 선교사의 횡포에 의분을 품은 김종태(金種台), 최진상(崔鎭商) 등에 의해 설립된 충북 충주에 있는 '조선예수교회'와 합동을 결의하였으며, 대구의 이만집, 만주의 조선기독교회 현성원(玄聖元)과도 교류하였다.

김장호의 '조선 기독교회'는 반선교사, 반교권, 자유신학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일제에 협력하는 왜곡된 길로 나갔고 결국 몰락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일부 선교사들의 치외법권적 오만한 자세와 교조주의적 문제 해석에 짓눌려 숨통이 막혀 있었던 당시의 교회가 이런 유의 운동을 일으키게 한 간접적 혹은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도 심각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황해도에 김장호와 비슷한 성격의 자치 선언이 경북노회의 이만집 목사에게서도 나타났다. 그는 1900년경 아담스(J.E.Adams, 安義篙) 선교사 전도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한학에 조예가 깊은 이만집은 아담스 선교사가 세운 대구 계성학교에 한문 선생으로 초빙 받아 대구로 옮겨 남성정교회(현 대구제일교회)에 출석하면서 장로로 장립되었다. 그는 선교사 조사로 일하다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1917년(10회) 졸업하고 경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안수 후 남산교회에 청빙되었고, 1918년에는 남성정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이만집은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동자로 활약하여 대구 만세시위를 주도한 열정의 사람이었다.

이만집의 자치 선언사건은 작은 일에서 발단되었다. 한번은 남성정교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년이 당회에 교회 내의 문제 몇 가지를 건의하는 서한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강대에 설교자, 사회자, 기도자 외에는 올라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예배당 가운데 쳐 놓은 휘장을 거두자'는 것 등이었다.

이 문제는 곧 당회에 회부되었고 당회에서 이 사람을 찾아 책벌하여 출교 처분을 하자고 주장하는 측과 출교는 과하므로 책벌만 하자는 쪽으로 나뉘었다. 이만집 목사가 온건 쪽에 가담하자 강경 측은 선교사들과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목사와 선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면서, 노회로 옮겨졌다. 노회는 선교사들과 강경과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만집을 남성정교회 당회장직에서 경질하려 하자, 교인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노회가 명령불복종으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이 목사는 이에 불만을 품고 자치를 선언했다. 노회는 이만집과 그를 지지하는 박영조(朴永祚) 목사(남산교회)를 정직시키고 온건 측 장로들을 책벌하고, 예배당 인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목사와 600여 교인은 예배당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노회측이 예배당 명도 소송을 냈으로써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비화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목사와 노회(선교사들)간의 문제로 압축되는 듯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반선교사 정책을 쓰고 있던 일제의 정책이 교묘히 작용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법정에서 10년간의 지루한 싸움으로 이어지다 결국 노회 쪽의 승리로 끝났다.

이만집의 자치 선언은 대구의 여러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시내 10개 교회가 이에 가담했고, 영양의 세 교회, 경주의 한 교회 등 14개 교회가 자치 선언을 하였다. 김장호의 자치 교회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반면 이만집의 자치는 경북 지방 개 교회 사건으로 끝났고, 이만집이 수양 차 금강산에 입산함에

# 얼바인 온누리교회 권혁빈 목사 사임, “‘멈춰라’ 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



권혁빈 목사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담담해 온 권혁빈 목사가 23일 예배중 사임을 발표했다.

권 목사는 그 전날인 22일에 목회 서신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하며 사임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목회서신에서 작년 YWAM DTS에 참여하기 위해 하와이를 방문하던 중 화산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받은 '화산 사건'을 언급했다. 2017년 12월 예배시간에 그는 "복음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그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한 바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 '멈춰라'는 말씀. 제 사역과 인생이 조금만 앞으로 가면 제가 원했던 대로 될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나님은 '멈춰라'고 말씀하셨다. 조금만 더 가면 내가 꿈꾸던 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

"이 사건을 겪은 후 야곱의 압박강 나무에서 하나님과 씨름이 떠올랐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계산, 자신의 방법을 의지해서 사는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수 없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

는 것은 그의 옛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아침에 해를 보면서 그 전날 밤에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느낌이 제게 느껴졌다. 이런 것이 부활이구나. 새로운 삶이 부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경험 이후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성도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세워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으며 그것은 "이미 여러 사역이 세팅되어 있는 기존 교회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것임을" 깨닫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권 목사는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의 설교와 사역을 11월 첫째주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계획이다.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대외협력

### 부총장에 이종오 박사 임명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총장 제프리 칸)은 2018년 10월 1일 자로 이종오 박사를 대외협력 부총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부총장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쳤고 경영 및 마케팅 분야에서 오래동안 일해왔던 경험을 인정받아 지난 7월에 학교 재단 이사회와 청빙위원회의 결정으로 40여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출되었다. 신임 이 부총장은 "클레어몬트 신학교회는 미국의 명문 신학교로서 그동안 큰 역할을 감당해왔는데, 앞

으로도 신학교가 온전하게 지속 성장할 때 신학교육의 향상과 목회자 양성이라는 두 트랙을 발전적으로 지향해 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 기금모금 운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오 박사는 오는 10월 7일(주일) 오후 4시 LA연합감리교회(이창민 목사)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본격적인 부총장 행보에 들어가 신학교와 한인교회를 잇는 교량역할과 재정적후원의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로 막을 내렸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민족적 주체성이 박약한 점에 대해 저항한 점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선교사 배척 정책을 쓰고 있던 일제에 본의 아니

게 협력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또한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제의 힘을 이용하려 했던 점은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나 나라 잃은 백성의 입원으로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를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밤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철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ete Hills Hyundai

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아이비 유학**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83>

### 베트남 이열매 선교사를 만나다

지금 미주에서는 전역에서 인터콧선교회가 주관하는 비전스쿨이 열리고 있다. 10주간 열리는 비전스쿨에는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직접 와서 강사로 섬긴다. 베트남 사역을 하는 이열매 선교사도 강사중 한분이다. 20대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던 전문인이 우연 비전스쿨을 듣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 단기선교와 1년간의 자비량선교를 훈련하면서 사명은 더 커졌고 마침내 2007년 중동의 1국으로 장기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 8년간 1국 사역을 참으로 잘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전도하여 제자된 청년들과 같이 다른 나라의 단기선교를 갔었다. 중동의 청년들은 인도와 중국은 잘 알지만 그 사이에 있는 인도차이나창의 5개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그 청년들은 인도차이나창을 품었다.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의 나라들로 단기선교를 갔다. 물론 이열매 선교사가 인도하여 그들과 늘 함께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되었다. 그렇게하여 1국에서의 8년 사역을 하고 베트남으로 사역을 옮겼다. 그리고 3년여.

이 선교사는 하노이에 선교지를 정하고 청년사역 중심으로 캠퍼스와 고아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사역을 했다. 그곳에서 3년사이 많은 비전스쿨을 열게 되었고, 그 열매로 라오스와 베트남의 연합 단기선교팀 13명이 마침내 중동의 이슬람 최강국 중 하나인 이란으로 단기선교를 갔다. 그 장면들은 참으로 놀라운 선교 열매였다. 테란의 대학을 방문한 인도차이나의 대학청년들은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간 페르시아어 성경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란의 대학생들이 그것을 받아 읽는다. 그리고 같이 영접기도를 따라 한다. 인도차이나의 크리스천 청년들은 변화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에 이방 선진국들로부터 자신들이 당했던 모든 피해를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모두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되었다. “라이파이한”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인들 그곳 여인들 사이에서 낯은 자녀들을 일컫는다. 아비들이 다 버리고 갔다. 그들은 아비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 용서했다. 너무도 착한 민족. 인도차이나의 나라들의 민족들 가슴에 그리스도가 점점 지경을 넓히고 있다. 이제 그들은 복음의 전사가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고 있다. 이열매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며 필자의 가슴은 하나님의 선교하심에 감격과 감동으로 차올랐다.

그렇게 중동 이슬람권의 청년들이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대상으로 인도차이나창의 나라들로 단기선교를 가는 단조를 마련했다. 그들이 하노이에 가서 놀란 것이 있다.

인구의 80퍼센트가 20대 미만의 젊은이의 나라였다. 한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넘었다.

세계 최대의 교육도시가 하노이였다. 그리고 그들이 중동의 청년들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을 너무 잘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수고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장기선교사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미주 한인교회들의 단기선교 참여에 힘입어 인도차이나 창 의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무도 청년사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다. 그렇게 중동의 청년들과 선교를 가다가 이열매 선교사는 말할 수 없는 큰 부담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청년사역자로 자신을 베푸시므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게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행복학 선구자 소크라테스의 행복(幸福)

소크라테스가 행복학 기초를 놓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없이는 철학의 역사를 논할 수 없듯이 소크라테스 없는 행복학 역사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류의 공통 목적이 행복임을 밝힌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도 행복을 논했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가진 자들의 관심사라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행복이 모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천명하였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고대 아테네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 국가였습니다. 도시 국가 아테네는 민주주의 정치 체도를 실행하였습니다. 물론 아테네가 취한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시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민주(民主)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아테네와 주변 도시 국가의 시민들 의식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아테네에서 인생의 지혜를 찾아 시민들을 계몽하였습니다. 그는 아테네 서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타고난 인품과 연마를 통해서 당대 아테네 젊은이들과 지식을 갈망하는 아테네 시민들의 스승으로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진리를 설교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전된 것이 소크라테스의 행복론입니다. 소크라테스의 행복론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크라테스는 행복이 보편적인 인간 삶의 목적이라는 명제

를 세웠습니다. 당시 많은 철학전도사 소피스트들이 행복을 말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관적인 행복을 말했습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행복을 주장한 것입니다. 플라톤과의 대화록인 《에우티데모스》에서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바라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행복추구가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갈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에 따르면 행복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 숙제입니다.

둘째로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정당하고 의롭게 추구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덕(德)스런 행복을 강조합니다. 덕이 있는 행복입니다. 도덕성이 있는 행복입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불행의 길로 접어드는 죄를 범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행복을 위해 선택한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용기, 절제 그리고 정의 같은 덕의 실천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끕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덕을 실천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도덕적 삶이 행복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행복은 단순한 기분 좋은 상태나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좀 더

고상하고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행복은 덕의 실천을 통해서 영혼이 맑아 질 때에 누리는 만족과 보람입니다. 그리스어로 행복이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좋다는 의미의 에우(Eu)와 정신이라는 뜻의 다이모니아(Daimonia)가 결합된 말입니다. 헬리어 행복이라는 말은 ‘선한 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셋째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행복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행복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과 덕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덕과 지를, 악덕과 무지를 일치시킵니다. 인간이 덕을 실천하지 못해서 불행해 지는 이유가 지식과 교육의 부족 때문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정복했던 주변 부족국 국민들의 무지한 삶과 그 무지한 삶의 파괴력을 보면서 지(知)가 부족하므로 덕(德)이 부족하고 덕이 부족함으로 불행하다는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행복을 살피면 낯설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행복론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른 지식의 습득, 덕이 있는 삶, 그리고 맑은 영혼의 소유가 행복프로세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궁극적으로 내면의 행복, 영혼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논리적 비약과 편향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각오하면서 소크라테스의 행복론은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라면 기독교적 행복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이런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른(성경)지식에 근거한 바른 삶으로 거룩한 영혼을 소유한 삶이 참된 행복입니다!”

### 익투스팀, 캐나다 국제 대회서 퍼펙트 게임 달성



2018 캐나다 오픈 국제대회에 출전한 익투스팀

이번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리치먼드에서 개최된 2018 캐나다오픈 국제 태권도대회에 출전한 미국 익투스(ICHTHUS: Jesus, Christ, of God, Son, Savior) 태권도팀이 7개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퍼펙트 게임’을 달성했다.

익투스 팀의 양복선 총감독은 3명

의 팀원들과 함께 7개 부문에 출전해 7개 모든 부문에서 1위(금메달)를 차지했다. 익투스 팀은 “이는 태권도 국제대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금메달 한 개, 두 개도 획득하기도 힘든 국제대회에서 7개 모든 부문에서 금메달을 달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양 관장은 이 대회에서 3개 부문에 출전해 3관왕을 달성했다. 그는 이 숫자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성경에서 숫자 3은 삼위일체, 신적완전을 의미한다. 이번 대회에서 하나님이 익투스팀과 함께하셨음을 이 기적을 통해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익투스 팀 선수들은 양 관장을 비롯해 류정환 사범(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 라예진(뉴욕주, 로체스터), Aaron Soriano(일리노이주, 시카고)이다.

크리스천 태권도 사범들로 구성된 미국 익투스 태권도팀은 미국 서부, 중부, 동부 전역에 걸쳐 태권도 선수들을 훈련하며 태권도대회 출전, 태권도장 운영, 태권도 선교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류성렬 대표(동아제약USA)가 후원한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NEXT 1차 인생 뒤집기 말씀집회(2)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 호세아 6:1

# 인생 뒤집기

## “고난 속 흔들리는 당신”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인생뒤집기 말씀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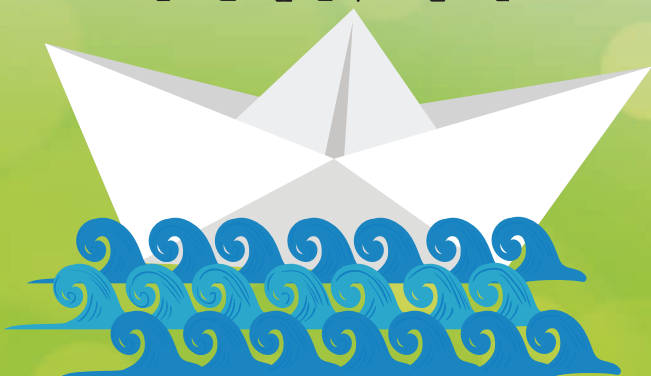


강사 김동호 목사  
전) 높은뜻 연합선교회 대표목사  
현) 사단법인 피파열 대표

날짜 10/11 (목) 저녁집회 7시 30분  
10/12 (금) 저녁집회 7시 30분  
10/13 (토) 새벽기도 6시 30분

장소 NEXT 사랑의 교회 사랑 채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문의 T.(949) 829-0010





# 서머나 교회와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8-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본문 요한계시록 2:8-11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여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북쪽으로 약 2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예게 해를 향하여 세워진 항구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밀레도, 그리고 서머나가 3대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진이 잘 일어나서 도시가 잿더미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소아시아를 침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곳을 먼저 침공하여 전술, 전략적 요새를 삼았기 때문에 상당히 환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로마제국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많은 돈을 들여 서머나 항구도시를 튼튼한 도시로 재건했는데 그 후 그곳 사람들은 황제를 신성시하는 폐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당하게 하는 울무가 되고 훗날 순교자가 생기게 되는 문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였고 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였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물약 성'입니다. 관목이라는 나무를 여러 조각을 내어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쪼개서 나무의 수액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수액에서 추출해 낸 것이 물약입니다. 이것은 방부처리를 하는 용도나 향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물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며 죽임을 당하시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물약 성'이란 이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에서는 예수님을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지상교회에 파송하시고 세우시고 불들어 쓰시는 주님의 사자(아포스톨로스)를 예수님이 오른 손으로 불들고 계신다는 것과 그 목자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그 교

회를 가꾸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 교회의 사명 따라 다양하게 불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서머나 교회를 두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자신을 이처럼 표현하신 것은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고 하신 말씀은 육신적인 기준에서 그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가난했고 환란을 많이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영적 소망의 믿음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서 상당히 부요한 교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자들이 자신들은 할례 받은 자들로 유대인이라 자칭하며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용 없는 일이라며 교회를 훼방하고 대적, 핍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단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이 고난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환란을 겪고 고문과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 환란을 불이심으로 진짜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 짓는 일을 하시는 것이기에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십 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 일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또 한가지는 다소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환란을 당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영적 성과를 기대하시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그 기대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그 환란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하십니다. 죽음으로 온전한 믿음과 충성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희생양으로 죽임 당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순교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살리

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정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믿고 목숨까지 완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죄악과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며,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11-15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심판받고 지옥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어린양의 보좌 앞에서 그 행위록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8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했습니다. 즉,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가는 일을 면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회학교에 치아파니이라는 12살된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황제숭배 사상으로 인해 황제를 신성시하여 황제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던 때였습니다. 그

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제단에 절하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는 절하지 않고 그냥 서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나게 하셨고 오늘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요 그분을 섬겨야 할 입장입니다"며 당당히 말했고 이로 인해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아이는 "수령님, 제가 사자 굴에 들어가서 이 육신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수령님이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엄청난 형벌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르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고 말하며 사자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그 교회 지도자인 폴리갑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A.D 155년에 화형을 당함으로 순교의 사망을 다하게 됩니다.

A.D 105년경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순교적 각오로 구령성과를 위한 사명에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어찌보면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두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받을 일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폴리갑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 당당한 믿음으로 순교했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OPEN HOUSE November 1, 2018 @ 7pm



ACSI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

# Higher Calling Youth Conference 2018

꿈을 가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HCY 2018에 보내주세요.

미주 청소년 수련회  
HIGHER CALLING YOUTH 18

## UNASHAMED

**12/27 (Tue) – 29 (Sat)**  
**SAN DIEGO TOWN &  
COUNTRY HOTEL**

등록 문의 [highercallingyouth.org](http://highercallingyouth.org)



**주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 **주관** SOON Movement(KCCC) | **대표대회장** 송정명 목사  
**공동대회장** 고승희 목사, 민경엽 목사, 박성규 목사, 이성현 목사, 정영희 목사, 진유철 목사,  
한기형 목사, 한기홍 목사 | **실행위원장** 이성우 목사 | **준비위원장** 박종술 목사 | **준비위원**  
이기송 목사, 김인화 선교사, Bobby Oh, David Park, Peter Lee, Daniel Lee





아틀란타벤엘교회 창립 2주년 단체사진 모습

### 창립 3주년 맞은 아틀란타벤엘교회,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11월 첫째주 창립 3주년을 맞은 아틀란타벤엘교회(담임 이혜진 목사)가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먼저는 10월 7일(주일) 오후 1시 30분, '주님의 숲'으로 널리 알려진 CCM 그룹 '사랑이야기'를 초청한 창립 3주년 기념음악회가 분당에서 열린다. 치열한 경쟁과 바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잔잔하면서도 힘있는 아쿠스틱 기타 반주에 눈빛만 봐도 통하는 두 형제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 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기대된다.

이어지는 집회는 10월 26-28일(금-주일)까지 송현성결교회 조광성 목사를 초청한 부흥집회, '성숙한 삶으로의 초대'다. 영성과 진리가 균형잡힌 목회를 추구하는 목회비전에 따라 철저한 말씀과 교리 훈련은 물론 영적전쟁에서 이기는 주의 군사를 기르기 위한 영성훈련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는 송현교회인 만큼 이번 집회를 통해 영적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아틀란타 성도들의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는 집회가 되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3주년을 맞은 아틀란타벤엘교회의 모토는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가파른 성장을 해왔지만, 양적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담아내고자 얼마 전 교역자들과 리더들을 초청한 수련회를 가졌고, 진솔한 대화와 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

한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처음 창립할 때부터 불들어 온 세 가지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고자 철저한 강해설교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 뜨거운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아틀란타벤엘교회는 앞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 '명목상 신자들이 주의 강한 군사로 변화되는 교회'를 향해 역동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년은 누구보다 제가 목사가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조금은 멧집이 생겼다고 할까?(웃음). 교회가 성장해 오면서 낙심되는 일들, 가시돋힌 말들로 상처도 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계속되는 만남의 복, 돕는 손길들, 좋은 부교역자들과 마음 말이 좋은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저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 아틀란타 땅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년의 과정을 회고한 이혜진 목사는 "지금 아틀란타벤엘교회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감사하게 30-40대 젊은 가정들이 늘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창립 3주년 기념예배 및 한마음 축제는 11월 4일 주일 예배 가운데 드러진다. 앤더슨 김 기자



뉴욕을 방문한 CMM 임원단이 기자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기독교의료상조회, 가입 성도 4만명으로 성장...혜택 및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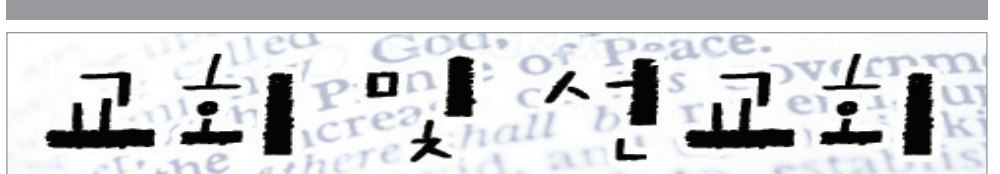
미국에서의 비싼 의료비 부담을 기독교인들끼리 나누자는 취지로 지난 1996년 시작된 기독교의료상조회(회장 박도원 목사, 이하 CMM)가 현재 가입 4만여 성도까지 참여하는 의료비나눔단체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의료상조회 임원진은 최근 플러싱의 한 식당에서 뉴욕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의료비나눔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앞으로 회원 혜택 및 서비스를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의료상조회 임원진은 지난21일 카네기홀에서 열린 2018 세계천양대합창제의 협찬사로 뉴욕을 방문했다.

22년간 운영돼 온 CMM은 지난 2013년 오바마케어를 계기로 크게 성장, 지금까지 CMM을 거쳐 간 회원수가 6만 명이 넘는다. CMM의 가장 큰 장점은 오바마

케어 이후 무뎠던 비싼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과 가입한 성도들의 양심을 신뢰하는 기독교적 운영원칙이다. 참여 성도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보다 나은 의료비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가고 있는 단계라는 점도 큰 장점이다.

CMM은 회비 40불부터 175불까지로 일반 의료보험에 비해 저렴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CMM은 의사나 병원의 제한이 없으며, 한국 등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가입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치료 중인 회원들을 위해 사역자와 회원들이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CMM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917-500-1330 또는 917-535-1144로 하면 된다.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버클링교회(7)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탁발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증하는 교회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1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 (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7:00  
찬양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일양배(토)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s.com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토)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j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26  
T. (213) 386-0685 www.lasas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 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말미예배) (스퀘어빌)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디오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디오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 유아,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조.침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유초등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 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이웃사랑을 행하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213)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6:00  
토요찬양예배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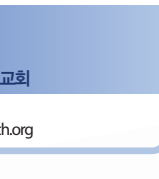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말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00(토)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1부 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 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쁨의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국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 낮은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555  
T. (818)38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549-9199 / choonhyun.org



정인찬 목사,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신임 연합회장 취임



신임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정인찬 목사가 취임패를 들어보고 있다.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정인찬 목사 연합회장 취임식 및 새창조교회 설립 2주년 감사예배가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내 새창조교회에서 진행됐다.

사무총장 임우성 목사(압구정예수교회)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김동성 목사(서기, 초원교회)의 대표기도, 정기영 목사(부서기, 희망을노래하는교회)의 성경 봉독, 박조준 목사(설립자, 전 영락교회 담임)의 설교, 취임패 수여, 신임 연합회장 정인찬 목사의 인사, 격려사 및 축사, 선교금 및 장학금 수여, 박희종 목사의 축도로 드렸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신임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정인찬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회장직을 맡게 되고, 새창조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연합회장직을 명예로 생각하지 않고 명예라는 생각으로 섬기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목양하려고 한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길 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설교한 박조준 목사는 “권력 앞에서 두려워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주의 종이 필요한 때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대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필요

한 것”이라며 “오늘날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대한민국이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사실을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전해야 한다. 연합회장에 취임하시는 정인찬 목사님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백성을 깨우치는 주의 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격려사 한 임재환 목사(CTS 사목)는 “정인찬 목사님은 세계적 안목과 성경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신다. 그것이 새창조교회, 그리고 국제독립교회연합회라는 샘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명균 목사는 “연합회장직을 명예가 아닌 명어로 알고 섬기겠다는 정인찬 목사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의 정신은 섬김이라고 본다. 오늘날 목사가 해야 할 일 역시 섬김”이라고 격려했다.

축사한 극동방송 한기봉 사장은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그 어떤 단체보다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정인찬 목사님의 연합회장 취임을 통해 교단을 초월해 한국 교회에 모범을 보이는 연합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언론회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 이 기독교 단체?”

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27일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 이 기독교 단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는 한겨레 신문에서 9월 27일자 1면과 5면, 두 면에 걸쳐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은 에스더였다’는 기사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에스더는, 에스더기 도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에스더기 도운동은 동성애 문제, 북한 구원, 이슬람 문제 등을 놓고 기도하는 선교단체이다.

교회언론회는 “한겨레의 보도는 정상적인 선교단체를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매우 투박하고 불명예스런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이를 극우 기독교 단체로 연결시키고 그로 인해 기독교 전체를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파악했다.

교회언론회는 한겨레는 에스더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가짜 뉴스’라는 것들이 정말 가짜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에스더가 만든 가짜 뉴스라며,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동성애 커플 거부 목사 징역형, 메르스 에이즈 결합 슈퍼 바이러스 창궐, 동성애 합법화하면 수간도 합법화, 동성애 케이크 제작 거부 미국인 벌금 폭탄 등이다. 다음은 교회언론회의 한겨레에 대한 반박 내용 요약. 바이러스는 의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감염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두 가지의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될 경우, 질병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즉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C형 간염에 동시에 감염되면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이즈 환자에게 있는 HIV와 함께 동성애 커플 축제 때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하여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위험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며, 이를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또 동성애가 합법화하면 수간(獸姦)도 합법화된다는 것은, 외국 사례에서 드러난 것이다. 캐나다는 2005년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인데, 2016년에는 수간을 합법화시켰다. 이것이 가짜 뉴스인가? 그리고 미국에서 동성애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거부한 사람에게 거액의 15만 달러 벌금 폭탄을 물리게 된 기사는, 한겨레와 합작 법인인 미국의 자유주의 인터넷 신문인 허핑턴포스트가 2014년에 보도한 내용이다. 그리고 동성애 커플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게 징역형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지난 2014년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한 것인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않아도,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는 것이다.

그 밖에도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올해 대한감염학회가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2006년부터 2018년 1월까지 18세 이상 에이즈 감염자 1,474명을 대상으로 역할 조사를 했을 때, 양성 혹은 동성 간 성 접촉을 통하여 감염된 사람이 60%를 차지한다는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이성간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 34.6%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특히 18-29세에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71.5%였고, 18~19세의 경우에는 92.9%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도 동성애와 에이즈가 상관된다는 것이, 가짜 뉴스라고 몰아세울 수 있는가? 또한 무슬림이 늘어나면 강간율이 높다는 것은 무슬림을 난민으로 받고 있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팩트를 근거로 하여 경고한 것이라 본다.

한겨레는 기독교 선교단체를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매도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겨레가 설립될 당시 소액주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도와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 권력이 생겼다 하여, 은혜를 입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한겨레이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파악해 가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언론의 권력 행사와 국민들의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감질을 하려한다면, 30여년 전의 언론 암흑 시대의 환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IS가 이집트 콥트교회 교인들을 침수하는 영상. ©IS가 공개한 영상화면 캡처

# 박해받는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

## 폭력과 박해에도 보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

이집트의 박해받는 콥트 기독교 소수 민족이 2018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됐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Nobel Committee)는 아직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신단체 콥트 올펀(Coptic Orphans)은 26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노벨평화상 후보 지명 소식을 전했다. 이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이유는 이집트 외 여러 지역에서 정부 및 테러리스트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콥트 올펀은 "오랫동안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초래한 '아랍의 봄' 시위가 일어났던 지난 2011년부터 교회가 박해를 견뎌왔다"면서 "오픈 도어가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전례없는 수준의 박해에 직면 해 있다.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128명의 이집트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인해 살해되었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추방당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콥트 신자들은 끊임없이 보복보다는 평화롭

게 공존하기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콥트 신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수많은 잔혹한 공격과 교회 폭탄 테러를 당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5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카이로 남쪽 수도원으로 가는 콥트 신자들을 공격하여 약 30명이 사망했다. 지난 2011년 10월 콥트 교도들이 교회 박해에 대한 항의 한 후 20명이 넘는 콥트족이 살해되고 약 200명이 부상당했다. 올해 초, 콥트 출신의 한 여성 기자가 브루클린의 가톨릭 뉴스 웹사이트인 'The Tablet'에 이집트의 기독교인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지 기록한 논평을 올렸다. 이 기자는 논평에서 "이집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슬람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는데 그것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은 콥트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집트인들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창녀' 혹은 '불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힐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자는 331명으로 216명의 개인과 115개의 단체로 구성돼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오는 10월 5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 위클리프 성경 번역가들, 1천개 언어로 번역 완료



프로젝트에 참여한 번역가들. ©YOUTUBE/WYCLIFFE BIBLE TRANSLATORS

위클리프 성서 번역가들이 남수단에서 1천개 언어로 성서 번역을 완료했다고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 8월에 달성되었지만 세계 언어의 10%만 차지한다고. 나머지 90% 언어 가운데 일부만이 여러 단계로 불완전하게 번역됐으며 오는 2025년까지 성경 번역 작업을 전세계의 모든 언어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클리프USA 최고 운영 책임자 러스 허만은 지난 수요일 CP 측에 지난 달 남수단에서 켈리코 성경(Keliko Bible)을 헌정한 장면을 이메일로 전했다.

허만 책임자는 "켈리코 신약 성서 봉헌식이 있던 다음날, 125만명을 수용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피난민 정착지인 비디비디(Bidi Bidi) 난민촌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졌다. 그 예배는 두 번째로 드려진 미니 헌납식 같았다"고 전했다.

켈리코 성경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언어 가운데 약 10%만이 완성된 성경으로 번역됐다. 약 2,500개의 다른 언어로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1,600개 언어(22%)는 완전히 번역된 성경이 아직 없다.

위클리프의 '비전 2025' 프로젝트 목표는 2025년까지 7천 여개에 이르는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지만 현재 45%에 달하는 언어가 문자와 언어의 부족으로 인해 소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로 인해 번역 과정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허만 책임자는 CP와의 인터뷰에서 "2001년에는 500개의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50년이 걸렸지만 그 다음 500개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17년만에 완료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친 번역 프로젝트를 수년 내로 단축한 이 가속화는 주로 남부와 동부 교회의 성장과 번역 과정을 이룬 기술적 진보가 결합된 결과"라면서 "전례 없는 지역 리더십 및 국제적인 통역사의 성장과 유사한 언어 그룹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주도함으로써 번역 업무가 가속화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성경번역이 전혀 되지 않은 가장 큰 언어 군집이 총 1,300개의 다른 언어가 사용되는 남태평양 섬에 있다. 예를 들어, 파푸아 뉴기니에는 8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한다.

그는 "가장 큰 도전은 엄청난 양이지만 지리적 접근성과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 언어의 부족이 심각한 장애물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 사회 기반 접근법이 의미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번역 프로젝트를 공동 작업하고, 서로 배우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프로세스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양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shalom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청년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기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여 함께 갈아나려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방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파기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문헌말씀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아태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 중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pm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z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 초, 중부  
중, 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넥스트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하나님이 주신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인간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인간이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서신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창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 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오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의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미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BTS(방탄소년단)에게 배우는  
기독교 문화의 방향**

“기독교 문화의 중요성, 여전히 선명한 콘셉트와 메시지에”



방탄소년단(BTS).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

방탄소년단(BTS)이 유엔 총회 연설과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출연 등으로 다시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지난 6월 윤영훈 교수(성결대)가 문화선교연구원에 기고한 ‘BTS 신드롬과 다시 부르는 청춘예찬’이 화자 되고 있다. 윤영훈 교수는 지난 2016년 ‘대중음악 목상 이야기’ 〈윤영훈의 명곡목상〉을 펴낸 바 있다. 다음은 그 내용.

◆다시 만난 ‘다시 만난 세계’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뛰는 말이다.” 민태원의 수필 〈청춘예찬(1924)〉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취업과 경쟁에 내몰려 그 싱그러움을 상실하며 피어보지도 못한 채 시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청년의 빈궁한 삶 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그들의 청년정신이 함몰되어 가는 현실이다.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요) ‘소확행(바쁜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등의 신조어는 젊은 세대의 보편적 성격이 아니라, 이들의 좌절된 꿈과 치열한 현실 속에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고자 스스로 찾아낸 생존 기술 인지 모른다.

지금 우리 시대에 ‘청년문화’는 과연 존재하는가? 청년기는 혼란과 모순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자신의 이상이 점차 무너지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고뇌를 통한 예술적 감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화는 기성문화의 진부함과 청소년 문화의 미숙함을 뛰어넘어 늘 새롭고 실험적인 문화의 트렌드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청년 문화는 청소년 중심의 소위 ‘아이돌’ 문화로 그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게 된다. 1970년대 이후 한국 청년문화의 주체는 대학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한 젊은 지식인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전의 청년문화가 보여주었던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은 미디어 자본과 거대 기획사의 교묘한 자기증식의 전략에 의해 선점되고 말았다. 들국화와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며 성장한 나는 2000년대 이후 급부상한 케이팝(K-POP)과 한류 열풍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대놓고 무시하고 비판했다.

그러던 중 2016년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화여대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진 한 노래는 나의 이런 ‘꼰대’적 선입견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아침이슬도 ‘임을 위한 행진곡’도 아닌,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열창하며 기독교에 저항했던 것이다. 지난 십 수 년간 K-POP 아이돌 음악 역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아이돌 음악을 접하며 우리는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들의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얼마나 진지한 고민도 깃들어 있는지 알게 되었다.

◆BTS(방탄소년단)와 아이돌의 진화

BTS 방탄소년단 BTS(방탄소년단)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트위터와 유튜브와 V영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플랫폼이다. 그들은 거대 기획사의 마케팅 홍보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친근하게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그들의 팬클럽 아미(A.R.M.Y)의 글로벌 확장과 결집을 불러온다.

이런 방식은 주류 미디어의 마케팅 공식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변방

으로부터 확산된 성공 사례이다. 이전에도 늘 그렇듯 대중문화는 뉴 미디어 환경을 통해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 왔다. 온라인 소통 뿐 아니라 그들의 ‘Airplane pt 2’ 가사에서 드러나듯 부지런한 해외 활동으로 보다 넓은 한류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BTS(방탄소년단)는 음원 시대에도 콘셉트를 입힌 앨범 중심의 활동을 하는 것에서 차별성이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들은 ‘강남 스타일’처럼 어느 특정한 곡의 신드롬이 아니라, 앨범 전체에 녹여낸 그들의 작품 구성과 멤버들의 균등한 참여와 앙상블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BTS(방탄소년단)가 고집하는 앨범의 서사성은 그들의 앨범 〈화양연화 pt 1〉부터인데, 초기 ‘상남자’ 시절과는 확연한 변화가 보인다. 앨범마다 그들은 ‘인트로’와 ‘아웃트로’를 수미상관으로 구성하고, 중간에 다양한 ‘사이퍼’와 ‘스키’를 삽입하며 개별 곡과 앨범 전반 서사에 봉사하도록 연계시킨다. 그들의 퍼포먼스와 뮤직 비디오 역시 그들이 담아내는 앨범의 콘셉트를 강화하는 예술적 장치로 BTS 세계관을 이미지로 확장한다.

세 번째로 그들의 가사에 담아낸 이 시대 청년들의 방황하는 자화상과 희망의 메시지이다. 이들은 염세와 희망이 교차하는 인생의 길목에 서서, 세상과 불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혈받을 수 있는 청년 정신을 노래했다. 이들의 팬들이 BTS(방탄소년단) 음악을 한번 빠지면 빠져 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들의 세련된 음악과 퍼포먼스 뿐 아니라 내재된 메시지 때문이다.

◆BTS(방탄소년단)에게 배우는 기독교 문화의 방향

이 반전의 희망은 성경의 중심 주제이며 다윗의 시편이 가장 선명하게 전하는 내러티브이다. 시편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청년 다윗의 맑은 노래들이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분노의 뉘드리로 시작하지만, 곧이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구원과 감사의 송축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윗의 현실은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지만, 주님이 “내 입에 두실 새 노래”를 통해 희망을 꿈꾼다. 현실에 아무 변화는 없지만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새 노래’ 그 자체가 여호와의 응답이었다(시 40:1-3).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은 어쩌면 제3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일지 모른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새 노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뉘를 해보게 만든다. ‘청년’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실험에 기대와 용기를 불어넣는 ‘정신’이다.

BTS(방탄소년단)에게서 기독교 문화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SNS는 이제 새로운 선교의 통로라는 것, 여전히 기독교 문화의 중요성은 선명한 콘셉트와 메시지에 있다는 것, 그리고 동시대인의 방황과 고민의 대변자로서 메시지의 예술적 공교함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꿈과 현실이 막연한 기적이 아니라 눈물 젖은 빵을 씹으며 이루어낸 ‘피, 땀, 눈물’의 결실이라는 것 말이다.

모두가 고개를 끄는 이 순간에도 대안적 삶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현실에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자의 상황에서 그런 창조적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대웅 기자



### 잘 배우는 사람의 지혜

우리 안에는 성장 본능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성장할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낍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첫 걸음을 내어 디딜 때,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글을 배우고 글을 읽기 시작할 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성장은 기쁨을 낳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힘이 들어도 성장을 위해 배움을 선택합니다. 성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장은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성장은 배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배움은 선택, 결단, 그리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배운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배움의 보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배움에 도전합니다. 배움이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기쁨을 나중에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되 잘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책을 읽으면서 배우십시오. 책 속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읽지 않은 책을 우리가 읽었다면 다른 사람과 책 한권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세울 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읽다보면 자신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몰랐던 것을 더 알고 싶은 목표가 생깁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더욱 깊이 알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의문과 호기심입니다. 제가 책을 읽게 된 가장 강력한 동기는 의문과 호기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1989년에 영적 침체와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의욕상실, 식욕상실, 절망감, 무력감, 그리고 수면장애를 경험했습니다. 참고 통스런 날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면서, 왜 세계 이런 침체가 왔는지, 왜 내게 이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무력증이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의 침체의 근본 원인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생각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 저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품었던 또 하나의 질문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를 잘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당시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법을 배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공부와 감정 공부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통하는 법을 배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업을 성취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을 배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의 질문과 고민에 대한 해답이 모두 책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책 중의 책인 성경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만남을 통해 배우십시오. 만남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소중한 만남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훌륭한 스승과 탁월한 멘토와의 만남은 복 중의 복입니다. 좋은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을 통해 잘 배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최고의 스승을 만났지만 슬프게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 잘 배우는 길은 질문과 경청과 메모입니다. 탁월한 분을 만나면 말을 적게 하십시오. 질문을 준비해 가서 마음에 품은 것들을 솔직하게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탁월한 인물이 되었는지 여쭙어 보십시오.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어떤 책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쭙어 보십시오. 어떻게 성공했으며,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했는지 여쭙어 보십시오. 어떻게 난관을 돌파했는지 여쭙어 보십시오. 어떻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여쭙어 보십시오.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지를 여쭙어 보십시오. 어떻게 탁월한 선택을 하는 지를 여쭙어 보십시오.

질문과 함께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경청하면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하십시오. 경청하는 중에 배운 지혜와 지식과 원리들을 메모하십시오.

메모한다는 것은 배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모한다는 것은 스승을 존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메모한다는 것은 배운 것을 나중에 활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목회서신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더욱 잘 배우는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 희망오류

희망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iswanting입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과 삶에 대한 희망오류가 있습니다.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람은 원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명령이 그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실제로, 사람은 어떤 일을 성취할 때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늘 쉬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계속 쉬었으면 좋겠다 평생 일 안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오류입니다. 결국, 하던 일을 중단하고 무작정 쉬기 시작하면, 사람은 삶에 대한 의욕을 잃기 시작합

니다. 심지어 사람이 목표를 상실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게 되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축복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단히 할 일을 찾고 땀을 흘려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희망오류가 존재합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가장 행복했을 때가, 바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열

정적으로 예배하고, 헌신적으로 섬길 때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쉬고 싶어 합니다. 예배도 쉬고 싶고, 섬김도 쉬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겼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곧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오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열심과 열정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모멘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선한 목표를 두고 열심을 다하는 자들을 특별히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희망오류에 속지 마십시오. 그저 할 일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 시간의 방향성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옥스포드 콘사이스 영어 사전이 몇 년 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시간”(time)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고, 시간에 의해 일과가 진행되며, 시간을 따라 임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늘 관심 갖는 것이 시간입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인생 자체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박성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교회

그러나 과연 흘러가는 시간의 양만으로 인생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70년 혹은 80년을 살았다는 양적인 시간만으로 인생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닙니다. 시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바른 것을 향해 살 때 그 시간이 빛나는 것이지 목적없이 흘러온 세월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른 시

간의 사용, 이것은 크리스찬 삶의 중요한 몫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엡 5:16)”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즉,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강조한 것입니다. 솔직히 시간이야 그냥 두어도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결국 시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달력만 넘기며 인생을 살기보다, 바른 뜻을 정하고 바른 사역의 열매를 위해 시간을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시계 바늘이 멈추었을 때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을 극대화하며 살 수 있을까요? 시간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것을 “시간의 나침반”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그 시간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사용된 시간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을 것입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살람!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행복재단(한영제)  
올림픽 칼국수, M,G,M

### 후원

기독일보, FHM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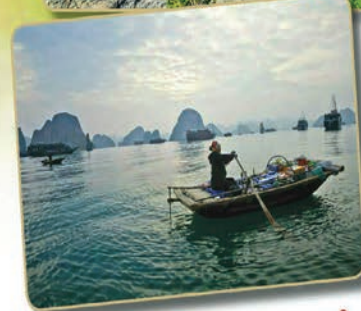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가을 맞이 고국일주 여행

그리운 고국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 일정

- 고국방문 7박8일 한국일정 (10/6-10/13) \$1,140 + 항공료 (특급호텔, 식사, 가이드팁 포함)
- 음션 베트남 3박5일 베트남일정 (10/2-10/6) 고국+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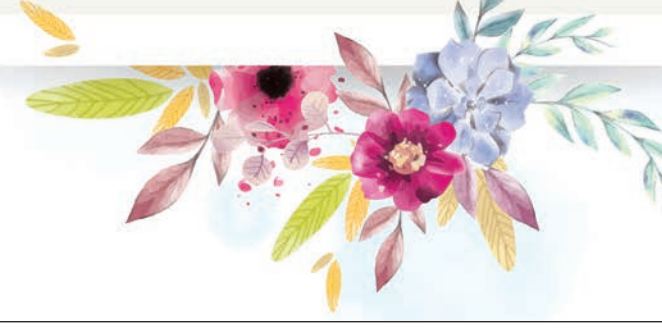
www.KorusTour.com  
문의: 213) 503-6196 제시카 213) 842-7079 JAY LIM  
Bravo Gyeongnam, 산청, 하동, 부여군, 수안보, 김해, Dynamic BULSAN, 원주시



## 미스바

화요 여성 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520 S. LAFAYETTE PARK PL#200  
LA CA 90057 (LA 비전교회)  
문정란 목사 | 213.344.6313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ORION AUTO SERVICE**

4SE CERTIFIED

- SMOG • INSPECTION
- TUNE-UP • BRAKE
-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0년만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톱, 발톱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 “질문하면 믿음 부족하다...” vs “청년, 질문 적은 듯”

## 청년들의 날선 질문, 그리고 목회자들의 대답



왼쪽부터 김동영 목사, 김종일 목사, 오동수 박사, 박광영 목사, 박하승 집사

청년사역네트워크(의장 김동영 목사) 주최로 교회 청년 공동체 '다시 세움'을 위한 제언 포럼이 9월 29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생각의정원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청년이 묻다'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청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고민했다. 이날 포럼은 1부 문화나눔 콘서트, 2부 기독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발표, 3부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청년이 묻다 토론회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한 3부 토론회에서는 송용석 청년(바람길교회 청년공동체 회장) 진행으로 김동영 목사(바람길교회), 김종일 목사(동네작은교회, 개척학교 숲), 박광영 목사(바다교회), 박하승 집사(Mind Most 대표), 오동수 박사(원문과 설교 발행인) 등이 패널로 나섰다. 이들의 문답을 간략히 정리했다.

**청년들의 질문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토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종일 목사:** 토론하고 질문하는 것, 청년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질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들은 너무 피곤합니다. 직장인들은 너무 지쳐있고, 대학생들은 쉴어야 할 '스펙'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동수 박사:**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정말 대화하고 싶다면,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겁니다. 내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십시오. 표면적인 주제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박광영 목사:** 부교역자 시절, 청년들편에서 이야기하려 했을 때 '예의 없다'거나 옳고 그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접근하기 힘들었고,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청년들 편에서 대화하려 시작했는데, 나중에 청문회가 돼 버렸습니다.

**박하승 집사:**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청년들에게 질문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 질문하는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 내 어른들에게 오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장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박하승 집사:** 말씀드렸듯, 사조직이라 불릴지언정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할 일은 어른들을 '계속 달달 묶는 일'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교단 총회에 참석해 봤습니다.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일단 행동해야 합니다. 장이 없다가보다는, 장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청년 담당 목사님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대화에 열려 있으리라 봅니다.

**오동수 박사:** 비슷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행동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문을 틀어막고 있는 곳들을 향해 행동해야 합니다.

**김종일:** 사실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보통 보수적이고 안전한 곳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보면, 급진적이고 전복적이며 당시 제도를 뒤엎는 혁신적 공동체였습니다. 유대교라는 확

고하고 공고한 조직에서 뛰쳐나온 운동이었지, 그 안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보다,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언제나 밖에서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한국교회 바깥에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이나 경배와 찬양, 대학생 선교단체 등은 모두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지요.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다면, 수많은 제재와 난도질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밖에서 먼저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동영 목사:** 20대 초반에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헌신의 의미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기성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을 이해하고 다가가면 대화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 온 그들의 희생과 노력을 무시하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청년들과 대화가 되는 이유는, 이 청년들이 예의를 지키고 어리광을 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퀘어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 창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 등 교회와 맞지 않아 보이는 새로운 세계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동수 박사:** 교회를 잘 선택하고, 잘 가르칠 분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정답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퀘어신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첨예한 논쟁이 이뤄질텐데, 더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박하승 집사:** 청년 시절, 한때 외계인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석하던 선교단체 간사님께 물었습니다. '외계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거냐고요(웃음). 그런데, 그 간사님이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답이 무엇인가보다, 기성세대에게 답할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본질적 두려움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질문자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김종일 목사:** 퀘어나 동성애 문제를 질문했을 때 교회에서 부정적이거나, 그냥 우리끼리 하면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화형당할 일이었지만, 개신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의 압박이 있다기보다, 우리가 어떤 허상 앞에 위축돼 있는 건 아닐까요.

**박광영 목사:**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한 교회에서 하면, 다른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퀘어신학의 경우, 때때가 제대로 돼 있다면 접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입니다.

**이 세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박광영 목사:** 수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보다 중요한 건 이미지 같습니다. 설문 발표에서 노방전도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하승 집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듯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좋은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

다. 더 좋은 방법은 '희생'이 아닐까요. 손해를 감수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자리로 앞장서서 가는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김동영 목사:**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너무 할 게 많고, 힘듭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열고 그들과 더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박하승 집사:** 무겁고 고통도 묻어 있는 듯한 질문이 많았는데, 쉽게 가볍게 대답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오동수 박사:**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셨는데, 한 시간으로는 짧지 않았나 합니다. 계속 이러한 고민들을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시고, 책들도 찾아보시고, 토론할 친구들도 챙기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김종일 목사:** '청년들에게 버림받은 한국교회를 위한 제언'이라는 슬로건이 참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들이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비판과 지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대안적 운동과 시도들을 해 보시면 어떻게 거꾸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모험하는 곳이고, 위험한 일을 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안전하고 편안하고 쉽게 뭔가를 하려 하지만, 사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이대웅 기자



#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NYTS는 1900년 뉴욕에 설립된 ATS정회원 학교입니다.

**등록마감일: 2018년 10월 31일**

**등록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Korean D. Min Program): 정원15명**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1차수업: 2018년 12월 17일(월) - 12월 21일(금) | 40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2차수업: 2019년 6월 17일(월) - 6월 21일(금) | 4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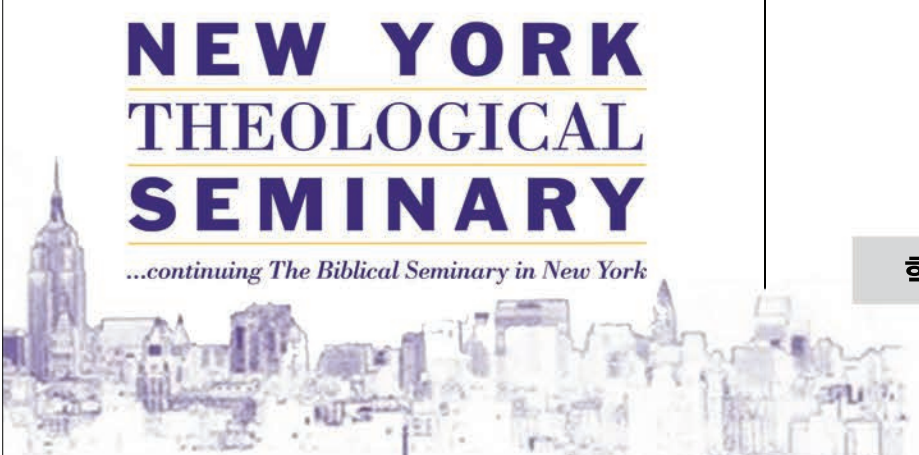
3차수업: 2019년 12월 16일(월) - 12월 20일(금) | 40시간

4차수업: 2020년 6월 15일(월) - 6월 19일(금) | 40시간

5차수업: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18일(금) | 40시간

6차수업: 2021년 5월 31일(월) - 6월 4일(금) | 40시간

**학위수여식: 2021년 6월 5일 \*6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213-272-6031



# “교회가 사람들 위로 못하니... 무당 찾아가” ‘무당 엄마’와 ‘목사 아들’을 만나다

추석을 맞아, 2018년 올해도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졌다. 명절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고향의 친지들과 부모님들을 만나는 기쁨과 나눔의 시간이지만, 차례와 제사가 전국적으로 거행되는 '우상숭배'의 기간이기도 하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지만, 아직도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 아래 미신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책 <무당 엄마 목사 아들>에 의하면, 이런 행위들은 '귀신'과 교제하며 그를 섬기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안에 놓이는 것이다. 저자 주명식 목사의 어머니는 신기(神氣)와 신병(神病)으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다,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됐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맨발로 외작두를 타던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주 목사는 어머니 같은 사람을 곁과 책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을 썼다. '무당 엄마', 그리고 '목사 아들'을 함께 만났다.

### 가계의 저주나 신력 같은 것들이 진짜 있으나.

목사 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절에 의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영이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물림되면 더 심해집니다. 더구나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계의 저주'라는 게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말이 나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냥 무당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우상을 섬겼고, 아버지 윗대에도 만신과 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적 흐름을 받아서 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굿을 하시는데 경기도 분이 배운 적도 없는 황해도 굿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쪽이 대대로 황해도 쪽 신을 받아서, 어머니가 황해도 신을 섬긴 것입니다.

### 그런 신의 정체는 '귀신'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 아들: 어머니가 받은 신 때문에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신이 해

코지를 하니, 집안에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신을 몰아주는 것이 '내림굿'입니다. 내림굿을 할 때, 그 신이 자신의 정체를 말합니다. 어머니는 광개토대왕, 일월성신, 삼신할매 등 19개 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현상학적인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마귀이고 악한 영입니다. 문화적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조상이 신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음부 아니면 낙원으로 갈 뿐, 무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귀신론'으로 유명한 김기동 씨 같은 경우 죽으면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임수이고, 이는 마귀이자 악한 영입니다.

### 그런 존재를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데요.

목사 아들: 무속인들 중 80%가 교회를 거쳐 무속의 세계로 들어섰고, 유명한 무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당으로 사는 이유>라는 책을 쓴 한 무당 분은 조직신학까지 공부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무속 세계에서 나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 전도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분도 집사님 출신에 교회에서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무속인들 전도를 해 보면, 교회 다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못 바꾼 건, 결국 교회 책임이 아닐까요.

### 무속인들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요.

무당 엄마: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목사 아들: 재밌는 게, 어머니가 무당이셨을 때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웃음). 하루 4-5시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듯, 기도를 많이 하는 무당이 아무래도 영험하지요. 귀신과 끊임없이 교제하다 보니 충만해지지요. 무속인들도 기도가 안 되면 산으로, 절로 찾아가고 합니다. 하지만 영험해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더 충만해질 뿐입니다.

무당 엄마: 저는 그 세계 문화에 있었을 때는, 담배도 세 갑씩 피고 외작두를 땀습니다. 신을 받고 나서는 술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

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 하니, 무엇보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목회하면서 나 같은 사람 도와주라'고 말하곤 합니다.

목사 아들: 무속에서의 기도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하는 기도는 하나님 뜻을 위한 것입니다.

###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치성(致誠, 신이나 부처에게 지성으로 비는 일)' 과 다를 바 없다 싶어 여쭙본 것입니다.

목사 아들: 기도가 잘못 들어오면 치성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치성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신이 감동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치성은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는 바가 있더라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더 좋고 유익한 것으로 응답받습니다.

무당 엄마: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염려하고 걱정했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절대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십일조는 떼야야 합니다.

목사 아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생계가 막막했지만, 가족 안에서 성령으로 소통이 되다 보니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좋았습니다.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 어머니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는지요.

무당 엄마: 집에 아들이 와 있으면, 손님이 끊겼습니다. 저는 울기도 많이 하고 담배도 많이 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신분이 바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 아들: 어머니가 무당이실 때 손님을 가장해 5번 넘게 집에 전도하러 찾아온 동네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분도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도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 '내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1993년 5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친구 목사



무당(이었던) 엄마와 목사 아들이 함께한 모습. 저자 주명식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방한 당시 기자와 만났다.

님까지 세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오자마자 욕을 하시더니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맨발로 뛰쳐나가셨습니다. 아버지도 '경우 없이 남의 집 와서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3시간 30분 정도 자신들 인생 이야기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간에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보니, 소주 두 병과 함께 아래층에서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 뜻에 따를 것이고, 우리 집 대장이 믿으면 믿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집 할머니가 범당을 모셨던 분인데, 부흥회 갔다가 불덩어리를 받고 세 번 귀신이 떠나간 분이었습니다. 그 분까지 예수를 따르라고 하니 아버지도 믿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믿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부모님이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2층이 범당이었는데, 어머니가 5천만원어치 신상들을 다 치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3시까지 썩 다 치웠습니다. 영접하고 나니 술 담배도 썩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저랑 새벽기도 같이 나가셨습니다(웃음).

무당 엄마: 범당 차려냈던 것들을 다 치운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시로 버려야 귀신이 역사하지 않지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 아들: 인간적으로는 5천만원 손해였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무속인들은 전도가 되더라도,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는 시대라지만, 점 치러 많이 답니다.

목사 아들: 신 내림을 받은 사람들은 대한경신협회, 역술인들은 역

술인연합회에 모여 있습니다. 둘을 합해서 15년 전에는 40만여명이었지만, 지금은 100만명에 육박합니다. 물론 가짜 무당도 많습니다. 진짜 무당은 10명 중 1-2명 정도라고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마음이 힘들 때 위로받고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하지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으니, 확실히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 확실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답이 정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무속은 해답이 굉장히 클리어(Clear)합니다.

무당 엄마: 저는 신을 일찍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신을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형제 간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간질해서 서로 싸움을 시키고, 넘어뜨리고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신을 안 받으니, 신이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몸도 아파서 버티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결하려면 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목사 아들: 저희 어머니는 사주를 풀어서 본 게 아니고, 순전히 신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전날 꿈을 꾸다고 합니다. 현몽은 죽은 조상신을 만나는 꿈이고, 선몽은 예지몽처럼 앞날이 화면처럼 보여지는 꿈입니다. 신이 '내일 어느 쪽에서 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온다'고 어머니에게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무당 엄마: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바람을 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느 쪽에 있고, 무슨 옷을 입었고, 색깔까지 맞췄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결 연결해서 손님을 데려옵니다. 이사만 가도, 하나님 안 믿으면 다 방향과 날짜를 봅니다.

이대웅 기자

##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8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9301 Fax: (323)643-9302  
www.aeu.edu/info@ao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인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어린 시절 간절한 산기도... 지금의 원동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20)- 전성수 목사

신실한 목회자 전성수 목사를 만났다. 목회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 있다. 기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가 신실함이다. 아무리 설교와 상담에 유능해도 신실함이 없으면 좋은 목회자가 아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상담 등도 신실함이 필수다. 신실함이 없는 설교나 상담은 의미가 없다.

신실한 목회자 전성수 목사를 만났다. 전 목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그의 신실함을 말한다.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로 살아가는 오늘 날까지 일관된 신실함이다. 그가 섬기는 용호남 교회는 아픔을 극복해 가고 있다. 전성수 목사도 갈등의 한 복판에서 아픔을 겪었다. 전목사는 특유의 신실함으로 아픔을 극복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겨낸 것이다.

### 어린 날의 신앙 훈련과 부르심

전성수 목사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생후 6개월에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고 그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았다. 그렇게 찾은 교회가 범일동 달동네에 있는 은천교회였다. 당시 박영석 담임 목사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평신도로 은천교회를 섬기다가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 기도와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다.

박영석 목사는 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기도 훈련을 시켰다. 당시에 박목사는 정기적으로 전 성도들을 이끌고 기도원을 찾았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했다. 전 목사도 그 어린 시절 산기도를 했다. 돌아보면 그 어린 아이가 두 시간 이상 되는 산기도 시간에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는지 본인이 생각해도 의아하다. 여하간 그 시절의 기도 훈련이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에 큰 힘이 된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목사였다. 친구들이 불러 주는 별명이 목사였고 자신도 목사가 되리라고 마음을 먹었고, 어머니를 포함한 집안 어른들도 목사가 되기를 바랐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이어서 담당하면서 친구들과 후배들을 대상으로 작은 목회를 했다.

그 시절 각 교회 학생회가 아주 활성화 되었던 시절이었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제목들이 참 많았다. 학생회 활성화, 학생회 전도의 결실, 그리고 학생회 자체 사업 등을 위해 많이 기도했다. 철야기도 그리고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했고, 성령을 사모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목회자로 훈련됐다.

### 신학 수업과 설교자의 잠재력

고등학교 졸업후 그렇게 바라며 꿈꾸던 신학 수업을 한다. 총 7년의 신학 수련 과정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다. 그가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설교였다. 말씀을 잘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학대학원 시절 설교학시간 현유헌 교수의 격려와 칭찬을 잊을 수 없다. 현 교수는 전 목사가 가진 설교자의 은사와 좋은 설교자가 될 잠재성을 특별히 인정해 주셨다. 교수의 칭찬과 격려로 그는 더욱 설교훈련에 매진하였다. 섬기는 교회들에서 주어진 설교의 기회에 최선을 다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열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였다.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들에서 설교사역에서 보람을 경험하였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목사는 늘 쉬운 설교, 들리는 설교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다. 그래서 본문의 해석보다는 적용에 더 관심을 갖고 실제적 삶을 만지는 설교를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 김해중앙교회나 안양일심교회를 섬길 때 담임목사님들의 격려와 칭찬을 받기도 했고 심심찮게 성도들의 격려와 사랑을 받았다. 물론 담임목사로 섬기는 용호남교회에서도 설교 사역에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

### 목회의 기쁨

전 목사는 기쁨으로 목회를 한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이요 보람이다. 목회자로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덤으로 받는 축복이다. 더 나아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있



전성수 목사(우)와 박선희 사모(좌)

다. 나아가 제자들이 헌신하여 목사와 선교사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나아가 목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큰 기쁨이다. 목회자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해서 가문이 복음화되었다.

### 기도의 제목과 목회적 소망: 사랑의 목회

그는 남은 세월의 목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다. 가슴의 품은 기도제목이요 비전이다. 우선 그는 사랑의 목회를 지향한다. 그래서 사랑의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다. 사랑하는 목사로 살고 싶다. 안양 일심교회를 섬기면서 김상수 목사님의 사랑 목회를 배웠다. 김상수 목사님은 정말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목회자였다. 김상수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다. 전 목사 자신은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기도한다. 남은 목회 세월 속에서 사랑의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 복지 목회

둘째로 전 목사는 복지 목회를 위해 기도한다. 성도를 향한 구제

적 사랑 실천을 위한 기도다. 한국 사회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교회 노령화가 한국 사회의 노령화보다 좀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노령화된 교회에 새로운 희망이 복지 목회라고 생각한다. 연로하신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그들의 노후를 돕는 목회다. 그는 복지 목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한다.

복지 목회를 위해서 노약자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교회당을 건축했다. 앞으로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장애우 전용 목욕탕이나 치매예방 교실,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취미 교실은 빨리 실행하고 싶은 분야다.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 쉽지 않지만 21세기 한국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라고 믿고 기도하며 추진한다.

### 교육 목회: 기독교 대안학교를 꿈꾼다

셋째로 전 목사는 교육 목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는 목놓아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 그가 자랐던 시절에 비하면 한국교회 교육 현장은 참혹하다. 교회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그는 사람을 키우는 목

회를 지향한다. 교육부서 전담 교역자를 통해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 장기적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꿈꾸며 기도한다. 대안학교 프로젝트는 단순하지 않다. 인력과 재정 그리고 시설이 필요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무너진 공교육과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하다.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 세우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 선교목회

넷째 전 목사는 선교목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는 교회가 선교공동체라고 믿는다. 그래서 여건만 되면 선교 현장을 찾는다. 지구의 반대편 원주민을 섬기는 이광보 선교사나 황연규 선교사는 선교 여정에서 만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는 지금도 단기 선교를 준비한다. 고단한 여정이지만 다시 가려고 짐을 싸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부르짖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목마르게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을 맞은 전성수 목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준비한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회자의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가고 있다!

강태광 편집위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시민권 취득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추방 재판
▶ 학생비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네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http://www.davidlimla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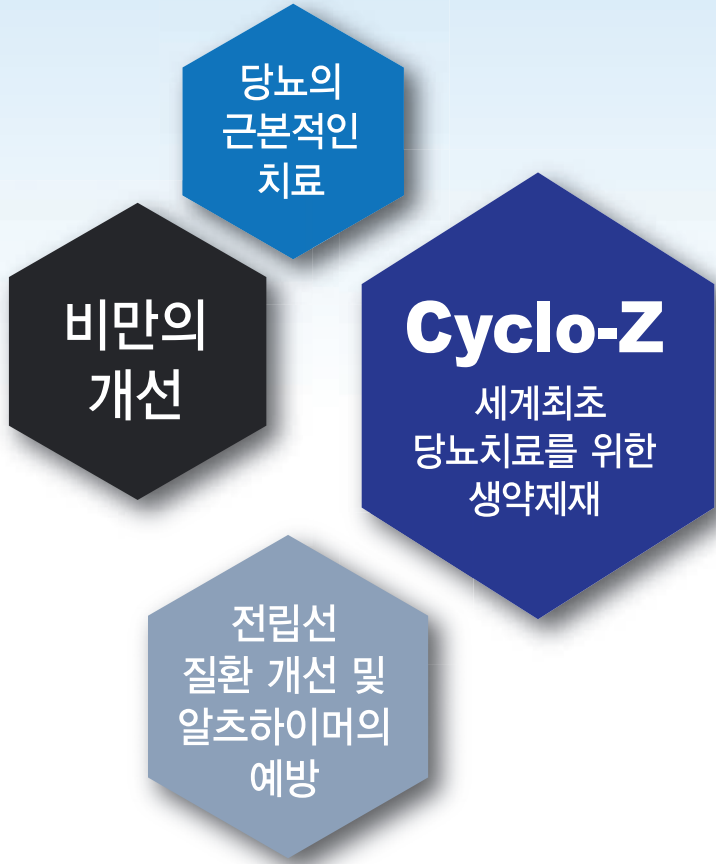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효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